

임진왜란 무명열전 <41회>

공명의 지혜, 자룡의 용기 ①

- 정문부 편

글·그림 정훈이



선조가 몽진할 때 어가가 함경도 방면으로 갈지, 평안도 방면으로 갈지 의견이 엇갈렸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대답좀 해봐시오!

함경도는 지형이 험하고 동북 6진 지역의 정예병을 활용해 재기를 노려볼 수 있지만, 자칫 고립될 위험이 있었고

선택장애 오지게 오네...

도망가는 건데 지형이 험한 곳으로 가야지.

나는 함경도!

평안도는 명나라의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자칫 임금이 조선 땅을 버리고 압록강을 건널 위험이 있었다.

명나라군 온다고 가정하면 평안도도 나쁘지 않은데

큰일 납니다!

호종하던 신하 대부분은 함경도로 가길 원했지만, 선조의 의중은 평안도에 있었다.

가득이나 겁 많은 주상께서 명나라로 망명하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찌하겠습니까?

내 의중을 귀 기울여 주옵소서 누구냐?

조선 임금을 잡기 위해 왜군 선봉장 고니시와 가토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놓고 한양에서 제비뽑기했는데

누가 먼저 뽑을지 정해야지.

사내답게 가위·바위·보

고니시

가토

가토는 함경도로 진군하게 됐다.

저지름나! 조선 임금이 평안도 쪽으로 갔어... ㄱ

나도 저지름나, 너 때문에 험한 길로 가게 되셨잖아.

함경도를 점령해가던 가토는 뜻밖의 횡재에 비명을 질렀다.

헉, 나로도 맛있다!

대박~

관북* 지방의 국경인(鞫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왜군에 부역을 자처했는데

국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이 국씨고, 이름이 경인이야.

호령부의 이천으로 재물 좀 모았다.

*관북(關北): 마천령 북쪽 지방으로, 함경북도 지방을 일컫는 말

심지어 근왕병 모집을 위해 함경도에 있던 조선 왕자들까지 잡아다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누구지 알아?

알지~ 이 사이코패스 X자들아.

순화군

임해군

관북 사람들은 평소에도 중앙정부에 불만이 아주 많았는데

우리 야인들의 빙판대막이로 쓰면서 차별은 더럽게 해요!

수도가 함락되고 임금이 피난을 가면서 대세가 일본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조선은 이제 끝이야.

인성과 행실이 개차반이었던 임해군과 순화군이 근왕병을 모집하러 와서 도리어 패악질을 일삼자 민심이 폭발했다.

왕자들 넘기겠소.

그대를 판형사게복으로 임명하오.

국경인

가토